

2021
 415
 41

서담 프로젝트 시즌 3





SOM

올해 들어 다미들은 어떤 글을 썼을까?

궁금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 1월~6월까지의 서담 돌아보기



전체글 업로드 수 Top 3







61689개



2

3012개



3

2681개



인기글 비율 게시판 Top 3

SOX





86.37%



2

5.37%





2,17%

전체 글 대비 인기글 비율은 약 7.5%...!





SO

1위

70프로 박선배님 vs 30프로 박선배님 뽑기

(19456 views)

70프로 박선배님 vs 30프로 박선배님 뽑기

	by 익명 익게2 조회 19475 23977	2021/01/23 15:30	
	70프로 박선배남 vs 30프로 박선배남 클릭해서 보기 (이야 중한 보이자) 스크및 성용	
2위	댓글 79개 조의 19475 역명1 01/23 1531 성교	,	3위
[튤립] 우리 학교 매치 오픈 이벤트! by 의명 면메상답소 조회 11974	보안 확실하네 글쓴이 01/23 15:34 전공	내 스스로의 급을 높이는 데 채찍길 by 의명 의계2 조회 10200	일되는 두 핫게글 ㄷㄷ 2021/06/11 16/43
*2016년부터 서당과 제휴를 맺고 있는 "통립"의 이번트 글입니 뜐립은? ✔ [마만의 기준] 5개의 절문을 직접 고르고, 나와 같은 생각을 ✔ [프라이버서] 사진과 내 표트될 정보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	a = 심성해서 해봤는데 강이보가 잘 막아졌네 a a a 군순이 01/23 15:35 원교 됨따도 있고 안됨때도 있고	내가 좋아배달라고 한적도없는데 벨스 자극 황	
✔[프라이버시] 사진과 내 프로필 정보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 ✔[무료 매치] 대화 신청과 수락은 언제나 무료에요 ✔[같은 학교 매치] 이메일을 인증하면, 우리 학교 사람을 찾습		↑ 링크 누르면 해당 글로 이동됨.	DZ378D
이번 이벤트는? 2021년 발련타인데이를 맞아, 스타벅스 기프타콘과 치킨을 씁니다!			0. 0.
EVENT 1)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미션 참여 시 100% 증정) - 튤립 app 에서 @sogang.ac.kr 학교 이메일 인증만 하면 끝!			
EVENT 2) 치킨 1마리 기프티콘 (5명) - 댓글 이벤트 참여자 중, 원점 유점 예정; 서담 운영자가 행운의 댓글번호 5개 주점 이벤트 마감 후 공지 예정 - EVENT 2는 물립 app 가입 없이 참여가능 (Step 1 스킵), EVENT 1 참여자는 EVENT 2 당점 시, 스타백스와 치킨 기프티콘 모두 중정		내 <u>스스로의 급을 높이는 데 채찍질되는 두 핫게글 ㄷㄷ</u> (10198 views)	
이벤트 참여 미선			
CA 4 회사 트립 은 서치하고 recapeur 가즈 서전1 메트에서 하고 이메이오 이즈하니다.			

[튤립] 우리 학교 매치 오픈 이벤트!

(11070 views)

같은 학교 선호 설정 서치 시같은 학교 매칭에 대한 선호도를 설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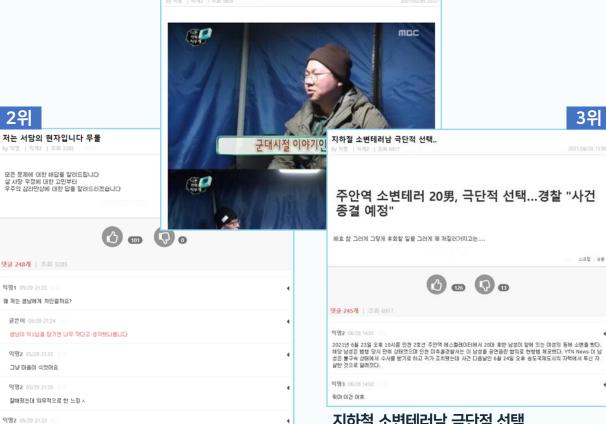


300

1위

치킨 피자 샀는데 욕먹은 후임

치킨 피자 샀는데 욕먹은 후임 (254 comments)



저는 서담의 현자입니다 무물

(248 comments)

지하철 소변테러남 극단적 선택.. (246 comments)



2위

오늘은 서담 6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담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서담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비록 버그들은 잘 못고치지만... 혼란한 인터넷 세상에서 서담만큼은 청정구역으로 남겨, 서강 용문간의 화합과 교류에 기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담 운영자 올림.

6년전 3관 빈 강의실에서 서당을 만들때만해도 이렇게 많은 : 지금은 하루 7~8천명이 찾아주시는 커뮤니티로 거듭나게 되 여러 풍파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미남들의 응원덕에 이렇게



3위

1위

by 익명 | 익게2 | 조회 6122

(774 likes)

[분노주의] 저도 모르는 새 강제로 졸업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시판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게시글을 즐기겠습니다 글 쓰는 게 처음이라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올립니다.
	[세품 요약] 세인트 상으로 돌갑유에 신청을 했는데 나장에 알고보니 돌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고보니 제가 3월 울업에당동양사를 받으러 갔는데 자기들이 그걸 멋대로 2월 물업대상자로 바꾼 다음 자동물속기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꼭 식으로 저한테 살망도 안하고 물업대상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새 물업이 되버린거입니다.
	제 의사항 상관 없이 들업유에를 제 시간에 세인트에 신청했는데 졸업이 되어버려서 연간 계획이 꼬이고 십자에 담당 교적원은 자꾸 제에게 적임을 즐거하려고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글을 클립니다 주변 분이 혼자 삭히
	지 말고 법적으로 알아보거나 공론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서요 드디어 아기 생겼다 ㅠㅠㅠ
	저는 지난 2020년 가을학기를 9학기로 미제 '졸업 유예'가 '됐어야 함' 최근 취준을 하면서 면접을 가게 되어 3월 5일 (공요일)에 졸업예정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면접을 보러 가야 하기에 의아했지만 졸업증명서를
	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겠다기에 곧 연락 준다기에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분들	그러고나니 본명 학생이 세인트 상으로 들업유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기 당하게 말씀 하시말래 아니;; 그러면 퇴래대로 클래주셔야 되지 않나? 고 하니까 나와테 메일로 뿐은 대상자 및 것이 가를 텐데 왜 그때 향의 약하고 지
성	제证 메일을 확인 안 한 내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래요 자격 그래서 저는 한청을 받도 메일 확인을 할 입무 없고 그거 통보지 동의기
	ek deo
6	
100	

[분노 주의] 저도 모르는 새 강제로 졸업 당했습니다

오늘은 서담 6주년입니다.

(723 likes)

댓글 104개 | 조회 3615 역명1 02/02 0201 항상 감사합니다ㅎㅎ



드디어 아기 생겼다 ㅠㅠㅠ

(710 likes)



MINTE CONTINUE CONTIN















익게1































양도분 필수문제 원가관리 사장의











행정 펜사이 55264 행정 펜사이 55264 로토보다 생명하 사내으나 사 다 교육 고로나 19 다운주 제무기

새내기게시판

자유게시판